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4월 8일 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67호

부쉬가 또다시 ≪악의 축≫론을 제창한것은 공화국에 대한 모독

6일부 ≪로동신문≫은 우리는 부쉬가 또다시 ≪악의 축≫론을 제창하는것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모독으로, 로골적인 침략위협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부쉬에게는 집안에서 ≪악의 축≫론을 다시 떠드는것이 필요했던 모양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보건대 부쉬는 세상이 비웃고 있는 ≪악의 축≫론에 그 어떤 타당성이라도 있는듯 한 인상을 풍겨야 올해 국회중간선거에서 자기가 저지른 실수로 공화당이 받게 될 타격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국제무대에서 정세를 계속 긴장시켜야 자기에게 정치자금을 듬뿍 안겨 주는 군수독점재벌들의 은혜에 보답할수 있다는 타산도 있을것이다. 사실 ≪악의 축≫론은 ≪충격료법≫으로 그 누구를 놀래우고 위압하는 동시에 더러운 리기심을 실현하기 위해 탁상우에서 고안해 낸것이다.

부쉬의 ≪악의 축≫론이 ≪대외용≫이 아니라 ≪국내용≫이라는 여론이 나돌고 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론평은 부쉬집단이 못되게 놀수록 미국에 대한 조선 군대와 인민의 복수의 감정은 더욱 북받쳐 오르고 있다고 하면서 부쉬집권세력은 현실을 랭철하게 보고 심사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6일

≪대북기본로선≫은 뒤집어 놓은 ≪북침통일≫로선

≪로동신문≫ 6일부는 남조선의 ≪한나라당≫패거리들이 꾸며 낸 ≪대북기본로선≫이라는 것은 뒤집어 놓은 ≪북침통일≫로선이라고 단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한나라당≫패당이 이른바 ≪과도기≫의 ≪시범적사업≫과 ≪상징적사업≫을 운운하는것은 그 무엇을 하는것처럼 흉내나 피우고 체면이나 지키면서 껄렁껄렁 지내며 우리 내부에 쉬를 쓸어 보자는 범죄적속심의 발로이라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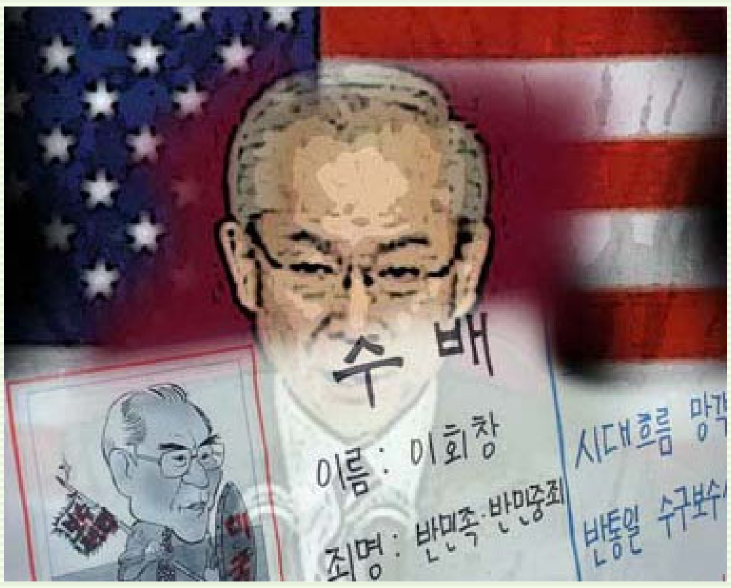
≪한나라당≫패당은 결국 우리를 압살하려고 발광하는 미제에게 잘 보여 권력의 자리를 따내 보자는것인데 이것은 역적행위를 생리로 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역적패당이 민족을 핵참화속에 빠뜨리려는 외세에 추종하여 ≪북부개발계획≫을 망상하지만 그것은 실현될수 없는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로선≫은 그것이 나온 시기나 추구하는 목적과 론조로 보아 이 반역정당의 괴수 리회창의 창안품임에 틀림 없다. 다음기 ≪대통령≫벙거지를 노리는 리회창은 분명 미국상전의 환심을 사고 제 몸값을 높여 보려고 그런 범죄적인 ≪로선≫을 고안해 냈을것이다.

우리는 민족사의 흐름과 시대의 요구에 도전하여 우리 공화국을 감히 넘겨다 보며 ≪북침통일≫의 칼을 벼리는 ≪한나라당≫패거리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역적배들이 죄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4월 6일



6.15남북공동선언 지지, 주한미군 철수 국제 서명운동 진행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며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 서명운동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됐습니다.

치르끼스딴에서는 3월 3일에서 18일에 치르끼스딴 공산당 제1서기가 7000명의 당원들을 대표하여 치르끼스딴 주체사상연구소조책임자의 120명의 소조원들과 회사원들을 대표해서 서명문에 사인했습니다.

베닌에서는 3월 25일 **김정일**장군만세친목회 위원장이 수천명의 산하 회원들을 대표해 서명문에 사인했습니다.

한편 3월 24일 시리아 아랍사회부흥당 민족지도부 대외관계부 직원, 성원들도 서명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4월 6일

2 노작
-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4 세기와더불어
- 5장 5절 새 무장력의 탄생 (2)

6 칭송
- 만경봉
- 주체사상은 세계 수억만 인민들 속에 널리 보급

7 구국의 소리
- 이회창은 반민족반통일역적
- 구국의 소리 뉴스 – 4월 6일
- 제2의 히로시마 오늘에 본다
- 조국통일의 위대한 대강
- 선군정치에 조국통일이 있다

10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4월 6일 보도
- 수령결사옹위 혁명군가 부르며 선군시대 빛내이자

12 평양방송
- 노동계급 혁명사상 발전에서 근본적 전환을 이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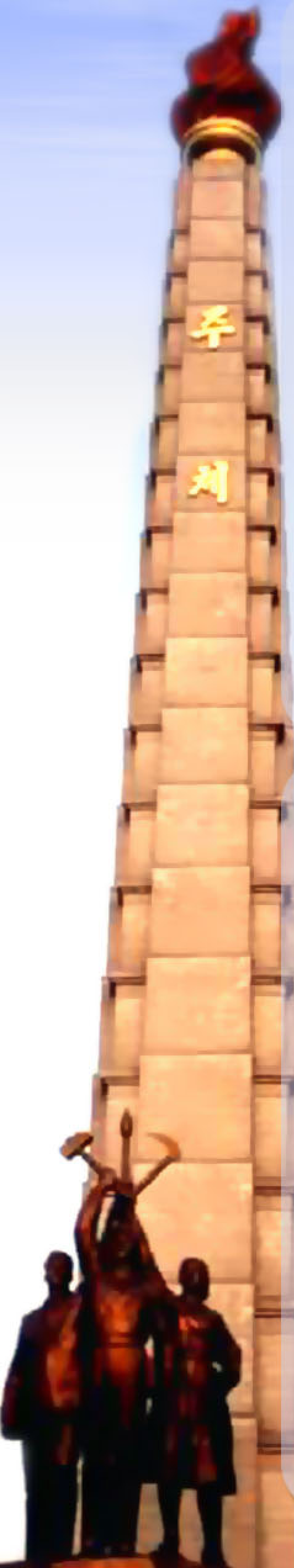
13 아리랑뉴스
- 공동보도문 어떤 내용 있나
- 한반도 화해협력 급물살
- 한나라당 경선은 당원들만의 잔치?
- 한통계약직 ≪죽음을 각오한 투쟁≫선언

15 운동강좌
- 부시를 곤경에 빠뜨리는 한민족의 반제자주역량(2)

16 조국통일3대현장
- 통일운동의 대하 (2)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 주체63(1974)년 2월 19일



우리는 이번에 15일간에 걸쳐 전국당선전일군강습을 가졌으며 여기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취급되였습니다.

선전선동부로서는 이때까지 이러한 강습을 해본적이 없으며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습제강을 인쇄하여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였는데 강습제강을 주는 것은 낡은 방법입니다. 강습제강을 주게 되면 제강에만 매달려 강습받은데 기초하여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나가겠는가에 대하여 머리를 쓰지 않게 됩니다. 강습에서 당사상사업 방향과 방침을 주었으면 응당 그에 기초하여 자기 머리로 궁리하고 짜내여 도면 도, 군이면 군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강습제강대로만 하자고 하니 그것이 벌써 틀에 박힌 형식주의입니다. 강습제강을 주게 되면 또 아무런 연구가 없이 제강을 하나에서부터 마지막점을 찍는 것까지 그대로 아래에 내려보내서 나중에는 리당비서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선전일군은 중간전달자가 되고 진짜 선전일군을 리당비서만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제강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만든 제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강습에서 받은 기본사상에 근거하여 자체로 제강을 만들어 아래에 침투시켜야 합니다.

오늘 나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1.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현시기 우리 당 사상사업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것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출발점으로 되어야 하며 또 모든 사상사업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데 철두철미 복종되어야합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은 시종일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중심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

이것은 현단계에서 당이 내세운 전투적 구호입니다. 당의 이 구호에 대하여 지금 내가 내놓은 새로운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의 제의에 의해서나 발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현시기 우리 혁명발전에서 그리고 당이 처한 모든 주객관적 조건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 것은 우선 이 구호에 우리 당의 최종목적이 뚜렷이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최종목적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주의는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 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완전하게 해명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는 현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이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는 또한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나가는 근본방향과 요구뿐 아니라 공산주의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일성**주의는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유일하게 과학적인 혁명사상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공산주의사회는 **김일성**주의에 기초하고 **김일성**주의가 완전히 구현된 사회라고 말할 수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 것은 또한 이 전투적 구호에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혁명은 **김일성**주의를 지침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곧 **김일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김일성주의는 공산주의건설의 혁명적 노정과 그 과정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는 바로 우리 시대의 노동계급과 인민들이 편향없이 곧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이며 전략전술입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주의를 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며 **김일성**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공산주의건설을 곧바른 길을 따라 성과있게 추진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하며 **김일성**주의화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주의화, 이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새로운 방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에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강령으로 들어야 할 것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의 역사적 뿌리도 수령님에 의하여 마련되였고 우리 당의 창건도 수령님에 의하여 실현되였으며 우리 당이 다름아닌 수령님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고 수령님의 사상을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로 조직된 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되였는데 왜 오늘에 와서야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강령으로 내세우게 되였습니까? 그것은 곡절많은 우리 당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건후 우리 당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은 풍파와 시련이 겹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당이 창건될때 우리 당안에는 검열된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국내외에 있던 여러 공산주의그루빠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각이한 유파의 사람들을 널리 포섭하고 하나로 묶어세우려고 모든 것을 다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종파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은 당에 속을 주지 않고 딴꿈을 꾸면서 고질적인 악습을 버리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들은 교묘하게 정체를 숨기고 양봉음위하면서 어려운 시기마다 당과 혁명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섰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종파의 오물과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조류를 극복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투쟁에 의하여 물론 반당종파분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조직사상적으로 분쇄되었으나 이자들은 지난날 당의 지도적 지위에 잠입해왔으면서 **김일성**주의화의 구호를 내세우는 것을 각방으로 방해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자기의 역사를 개척해온 우리 당은 창건된지 30년이 가까이 되는 오늘에 와서 비로소 **김일성**주의화를 자기의 강령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당이 창건 첫날부터 **김일성**주의화를 자기의 강령으로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 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백지상태에서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자는 것을 새롭게 결심하고 이 전투적 구호를 든 것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김일성**주의화가 그 어떤 새로운 방침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론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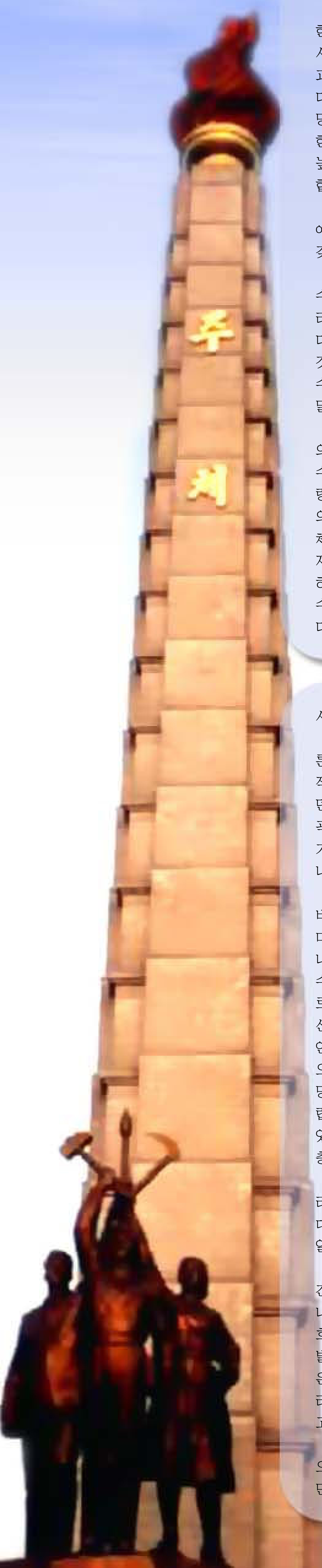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김일성**주의화는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영도하여오신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신 그때로부터 우리 혁명대오의 **김일성**주의화가 시작되였고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당의 **김일성**주의화가 시작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우리의 새 사회건설을 영도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기하고 있은 **김일성**주의화의 구호는 그 어떤 새로운 방침이 아니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여 오신 우리 혁명위업의 계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호는 당시에 들지 못하였던 것을 오늘의 조건에서 다시 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오늘 제기하는 **김일성**주의화의 구호가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담지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고 있은 **김일성**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주의의 기치따라 공산주의에로 이끌어가자는 것이며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바로 **김일성**주의화과정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김일성**주의화의 구호를 제



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로는 제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오늘에 와서 비로소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당이 새로운 구호나 새로운 전략을 제기하려고 하면 주객관적 조건과 요구가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구호를 제기하고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위대한 사상, 혁명과 건설의 올바른 지도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상의 일색화가 사회발전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어야 하며 또한 사상의 일색화를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의 높은 각오와 준비된 정치적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 당의 경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사상, **김일성**주의가 우리 혁명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 이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진 것은 사상의 일색화를 당의 구호로 제기할 수 있는 결정적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일성**주의와 같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선혁명은 일찍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기의 앞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여왔습니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는 그때에 벌써 자기의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 수 있는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매 단계의 혁명이론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누구도 걸어본적이 없는 생소한 길을 헤치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있게 수행하면서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빛나는 승리에로 전진시켜왔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실천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총화하시고 우리 시대가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이론을 독창적으로 완성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공산주의혁명이론에 의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역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며 전면적으로 완성해나갈 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른 지도사상, 지도이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주의 밖에는 더는 없다고 우리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맑스주의, 특히 레닌주의를 세계의 모든 당들이 다 받아물어야 할 지도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맑스주의, 레닌주의는 물론 변함없이 노동계급의 귀중한 혁명이론이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고수하며 그 일반적 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혁명실천에서 의연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은 어디까지나 100년전, 50년전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내놓은 것들인 것만큼 오늘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있는 우리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해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하여 과학이론적으로 밝히는 우리 시대의 이 역사적 과제는 오직 **김일성**주의에 의하여 비로소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역사적 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역사의 새시대입니다.

주체시대는 또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역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위대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여기에 **김일성**주의가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이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야말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입니다.

김일성주의는 완성된 공산주의혁명이론입니다. 맑스는 자본주의운동법칙을 발견하고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과학적으로 논증함으로써, 레닌은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인 제국주의의 역사적 지위를 밝히고 제국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논증함으로써 과학적 공산주의이론의 창시에서 중요한 역사적공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맑스나 레닌이 내놓은 공산주의이론은 그들자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였으며 또 그들이 처하였던 시대적, 역사적 제한성으로 하여 매우 윤곽적이고 단편적인 것이며 적지 않게 예측과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혁명이론은 **김일성**주의에 의하여 비로소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체계화되었으며 전일적인 완벽한 과학적 이론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 인민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이론을 따르고 신봉하며 **김일성**주의를 자기의 사상과 신념으로, 투쟁의 무기로 삼고 있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노동계급과 인민들은 오직 **김일성**주의가 가르치는대로만 하면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거침없이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들의 실지 체험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은 우리 당이 오늘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구호를 내세운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의 구호나 당의 방침은 사회경제적 조건, 물질적 조건의 성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가 갖추어져야만 당의 구호는 빈 구호로 되지 않고 실제로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구호는 우리 사회발전의 완전히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상이 전사회적 규모에서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는 것은 오직 공산주의자들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적대적 계급사회에서도 매개 계급은 자기 계급의 사상을 전사회적 사상으로 만들려고 애는 씁니다. 그러나 어느한 계급도 이것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인민대중이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같은 사회주의적 근로자로서 공통된 목적과 지향밑에 투쟁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이 온 사회를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 요구로 될뿐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이미 섰을 뿐 아니라 공업화가 실현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있는 오늘의 우리 나라 조건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완전히 성숙된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정치적 역량도 튼튼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되었으며 그 위력은 비상히 강합니다. 우리 당은 **김일성**주의의 길을 따라 사회와 인간을 적극적으로 개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 당, 위력있는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더욱 세련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당은 오늘 세계적으로 공인된 가장 권위있는 혁명적 당입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혁명화, 노동계급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오직 수령님의 사상대로만 숨쉬고 살며 싸우려는 혁명적 입장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확고히 섰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전체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새시대를 개척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투쟁의 진두에 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신심과 투지와 용기에 넘쳐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싸워나가는 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주객관적 조건과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현시기 우리 당이 지닌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며 가장 책임적이고 숭고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이 역사적 위업수행에 우리 당의 모든 힘을 남김없이 동원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당 사상사업부문은 그 첫째가는 담당자로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사업은 우리가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지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서는 여러 가지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상사업을 하는 우리 선전일군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항구적인 강령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하며 대를 이어 **김일성**주의를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일 수 있게끔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하여야 합니다.

(끝)

2권 제5장

무장한 인민

1. 수난당한 대지
2. 9.18사변
3. 무장에는 무장으로
4. 혈전의 준비
5. 새 무장력의 탄생

5. 새 무장력의 탄생 (2)

반일부대병사들은 거의 모두 팔에 완장을 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같이 ≪부파스 부요민≫이라는 글이 씌여있었다. 그것은 죽기를 겁내지 말며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이다. 군졸들에게서 풍기는 험상궂은 인상과는 달리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좌우명은 매우 건전하고 전투적이였다. 그 글이 나에게 우사령과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지도 모른다는 한가닥의 기대를 품게 하였다.

그날 우리는 류본초선생의 안내로 거침없이 우사령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참모장의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우리를 례절있게 맞이하고 대우도 높은 급으로 잘해주었다. 우리모두가 중학교졸업생으로서 연설도 할 줄 알고 격문도 쓸 줄 알고 무기도 다룰 줄 아는 한창나이의 젊은이들이라는 것을 내탐하고 자기네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욕심이 나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내 짐작과 같이 우사령은 정말로 우리를 자기네 부대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나보고는 사령부선전대 대장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나의 속심은 자기 군대를 만들어 그것을 합법화하자는 것인데 사령이 나더러 선전대 대장을 하라고 하니 나로서는 참으로 난처하였다. 내가 거절하면 우사령이 노염을 탈 것은 분명한 일이였고 류본초선생의 립장이 딱해질 수 있었다.

나는 일이 싱겁게 되기는 하였지만 우사령의 신임만 얻으면 운이 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우사령은 몹시 흡족해하였다. 그는 즉석에서 부하에게 임명장을 쓰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사령부선전대장으로 되었다. 호진민은 부참모로 되고 진한장은 비서로 임명되었다. 소원밖의 황당한 결과였지만 우리로서는 어차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사닥다리였었다. 사실 이 벼락감투가 유격대를 합법화하는데서 큰 은을 내었다.

나는 남의 집 뒤골방에 배겨있을 때의 우리 처지와 류본초선생의 알선으로 우사령부대의 심장부에 깊숙이 침투하게 된 오늘의 처지를 대비해보면서 마음속으로 인제는 됐다고 쾌재를 울리었다. 그런데 그날저녁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에 부닥치게 되었다. 구국군이 연길에서 푸르허로 넘어오는 조선청년들을 70-80명이나 붙잡아 성시로 끌어왔던 것이다.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끌려온 청년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나는 류본초선생한테로 뛰어갔다.

≪선생님, 이거 야단났습니다. 선생님네 사병들이 조선사람을 또 무리로 잡아왔습니다. 저 사람들 속에 무슨 친일파가 있겠습니까. 왜놈의 앞잡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보고 처리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류본초는 나의 말을 듣고나서 ≪성주, 네가 나가봐라. 우리는 너를 믿는다≫고 하였다.

≪선생님, 나 혼자서는 곤란합니다. 선생님께서 같이 나가셔야 합니다. 원래 선생님은 연설을 잘하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연설을 하시면 왜놈의 개라도 다 감화될 것입니다. 감화시켜서 왜놈들과 싸움시킬 생각을 해야지 거 친일파도 아닌데 자꾸 죽여서 뭘하겠습니까.≫

≪성주가 연설을 잘하는데 나까지 무슨 연설을 하겠나. 혼자 나가보라구.≫

류본초선생은 손을 내저으면서 한사코 사양하였다.

선생의 말처럼 내가 학생시절에 연설을 많이 한 것만은 사실이다.

길림, 돈화, 안도, 무송, 장춘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제의 만주침략야망을 폭로하고 조중인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많이 하였다. 류본초선생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 내가 조선말로 연설하면 선생님네 부대 어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내가 나쁜 선전이라도 하는가 하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류본초선생은 나의 말을 듣자 또 손을 내저으면서 어서 나가보라고 재촉하였다.

≪성주가 기껏해서 공산당 선전을 하겠는데 일없어. 내가 보증할테니 마음놓고 연설을 하라니까.≫

이 선생이 벌써 내가 공산당에 관계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공산당선전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야지요. 그것이 뭐 나쁠 게 있습니까.≫

서로 믿지 않는 처지이면 그때 내가 류본초선생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나도 공산당이고 일제의 앞잡이라고 잡아제끼면 그만이지 딴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선생이 나와 각별히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 것만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와 류본초선생은 육문중학교시절부터 서로 격의없이 지냈다. 내가 길림에서 학교를 다닐 때 류선생은 따뜻한 심정으로 나를 극진히 돌보아주었다.

내가 류본초선생과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사령이 참모부로 들어왔다. 그는 붙잡혀온 청년들을 내다보며 또 공산당원들을 잡아온 모양이라고 하면서 공산당이 만주땅에다가 어느새 저렇게 많은 새끼를 쳤는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 류본초선생이 얼른 나에게 선전대장이 빨리 나가서 저 사람들과 담화를 해보라. 조선사람들이 다 공산당일 수 없고 또 공산당원이 다 일제의 앞잡이로 될 수 없지 않는가고 하면서 끔뻑 눈짓을 해보이었다.

우사령은 참모장의 말을 듣고 대노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폭동을 일으키고 땅을 빼앗으려 하다가 일본놈들까지 끌여들었는데 그래두 공산당이 일본놈의 앞잡이가 아니야?≫

우사령은 참모장의 말을 듣고 대노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우사령의 편견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맹목적이였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오해도 그만 못지않게 집요하였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사령을 설복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고 당돌하게 들이댔다.

≪사령님께서는 공산당이 나쁘다는 것을 책을 보고 아십니까? 말을 듣고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때문에 공산당원들을 나쁘다고 하십니까?≫

≪책은 무슨 책, 말을 듣구 알지. 입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공산당원들을 나쁘다구 해. 그래서 나두 나쁜 줄로 알구 있는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아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됐다!≫하고 마음을 놓았다. 체험에 기초한 견해가 아니고 소문을 듣고 생긴 오해이니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던 것이다.

≪사령님이 자기 주견도 없이 남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큰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던 진한장과 호진민도 공산주의자들이고 참모장까지 우리를 지지해주고보니 우사령은 결국 우리들에게 포위된 셈이였다.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나는 설복을 계속했다.

≪사령님, 아까운 청년들을 자꾸 죽여선 뭘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총은 당장줄 수 없겠지만 창이나 하나씩 주어서 한번 돌격대로 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놈들하구 잘 싸우는가 어쩌는가를 시험해보잔 말입니다. 잘 싸우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죽여버릴거야 없지 않습니까≫

우사령은 내 말을 한참동안 듣고 있더니 ≪음, 그건 그래. 그럼 선전대장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게.≫하고 말하였다.

나는 붙잡혀온 청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쪽지 한 장을 써서 그들 속에 은밀히 들리었다. 당신들은 증거가 없는 한 공산당원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 당신들의 몸을 수색할 때 나온 ≪반일병사들에게 고함≫이라는 삐라는 어데서 주었다고 대답하라는 내용의 쪽지였다. 그 사람들은 이 쪽지가 어떻게 되어 자기들의 손에까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나타나자 잡혀온 청년들은 모두 분노에 찬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나를 우사령한테 와서 그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나부랭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적의에 찬 시선을 몸에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동무들 가운데서 김성주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물음 한마디에 얼음장같은 긴장감은 깨지고 장내에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퍼져갔다. 김성주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내가 바로 김성주올시다. 나는 지금 여기 우사령부대에서 선전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사령은 방금 나에게 당신들이 구국군에 합세하여 싸울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알아보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온 장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였다.

나는 우사령을 찾아가서 청년들의 동향을 그대로 전달한 다음 우리가 그들을 흡수해서 일본군대와 싸움을 시켜보는 것이 어떤가고 제기하였다. 우사령이 그 제의에 선뜻 응해나섬으로써 청년들의 생사와 운명 문제는 우리의 요구대로 결정되었다. 우리 앞에는 반일련합전선을 실현할 수 있는 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무장대오를 조직하던 때 (1932년)

이렇게 유격대를 합법화할 수 있는 문어귀에 거의 도달했을 때 우사령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조선인 고문이 말썽을 부리였다. 그는 김좌진파에 속한 오랜 민족주의자였는데 남호두에 와서 농사를 하다가 9.18사변이 일어나자 구국군에 합류한 사람이였다. 그는 지식이 있고 두뇌가 명석하였기 때문에 우사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이 사람이 우사령을 사촉하여 공산주의자들을 박해하게 하는 모사였다. 그는 70-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사도 해보지 않고 부대에 받아들이는 것은 경거망동이라고 하면서 그들 중에는 친일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떠들었다. 이 사람을 눌러앉히지 않고서는 우리의 활동에 또다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어느날 나는 우사령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거 부대에 조선사람이 한명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까?≫

우사령은 아니, 아직도 못만나봤는가고 하면서 부하들을 시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만나보니 키가 무척 크고 체격이 건장한 사나이였다.

나는 ≪인사합시다. 선생님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겠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니 많은 편달을 주기바랍니다.≫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였다.

그도 자기 소개를 하였다. 그는 사령부에 중국말을 잘하는 조선청년이 새로 들어와 선전대장이 되어 우사령을 보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 소식을 듣고 같은 조선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었노라고 하였다. 그가 감히 조선사람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민족에 대해 운운하기 때문에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이댔다.

≪그러면 반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야지 어째서 자꾸 죽입니까? 사상이 다르다고 죽이면 됩니까? 조선사람이 제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만 해도 분한 일인데 여기 만주에 쫓겨와서 구국군들한테까지 잡혀죽으니 이 이상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를 했건 민족주의를 했건 주의를 가리지 말고 단결시켜서 일제와 싸우게 해야지 자꾸 배척하고 잡아제껴서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선전대장의 말이 옳다하면서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두 번째 장벽이 허물어졌다.

우사령은 우리의 담화가 호의적인 분위기속에서 결속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우사령에게 사령께서 나를 믿으신다면 선전대장자리는 호진민같은 사람들에게 겸직으로 주고 나에게는 차라리 조선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투쟁할 대장책임을 하나 줄 수 없느냐고 제기하였다.

류본초선생도 지당한 말이라고 하면서 나를 지지해주었다. 우사령은 조선사람으로 부대를 따로 뭇는다면 총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령님보고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적의 총을 빼앗아서 부대를 무장시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우사령은 그 대답을 듣고나서 몹시 만족해하였다.

≪그럼 부대를 뭇게. 그런데 자네네한테 무기를 주었다가 후에 그 총부리를 돌려대면 어쩐다?≫

≪그건 념려마십시오. 그런 배신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설사 총부리를 돌린다해도 사령님네 부대와 같이 큰 부대가 우리같은 햇내기들을 못당해내겠습니까?≫

우사령은 손을 내흔들며 오히려 제편에서 대장이 롱담을 진담으로 들은게 아닌가고 하면서 너털웃음을 지었다. 나는 처음부터 구국군에서 떨어져나오겠다고 하면 우사령의 노여움을 살 것 같아서 그에게 사령의 명의로 부대의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옆에 있던 류본초선생이 ≪그럼 별동대라고 하지. 조선인별동대라고 하는 것이 좋겠소.≫하고 말하였다.

류본초선생의 제안에 우사령도 찬성하고 나도 찬성하였다.

비밀유격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은 별동대의 탄생과 함께 성과적으로 종결되었다. 우리는 이 별동대안에 안도에 있는 비밀유격대성원들과 우사령부대에 억류되었던 70-80명을 다 포함시켜 유격대를 합법화하였다.

나는 진한장과 호진민의 손을 량손에 하나씩 갈라쥐고 사령의 방을 나섰다. 우리는 ≪승리요!≫ ≪대성공이요!≫하면서 온밤 성시의 둘레를 거닐었다.

호진민은 나에게 가치담배 한 대를 권하면서 한번 연기를 삼켜보라고 하였다.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는 술에 취하든가 술이 없으면 담배연기에라도 취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나는 처음으로 가치담배를 물고 삼키다가 숨이 막혀 오랫동안 재채기를 하였다.

그 바람에 호진민도 웃고 진한장도 웃고 나도 웃었다.

≪원참, 담배연기도 삼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빨찌산대장을 하나.≫

호진민은 이런 롱까지 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와 담판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뒤골방에 배겨있던 동무들이 나를 목마에 태워가지고 밖으로 우르르 쓸어나갔다. 그리고는 온 동네가 다 듣게 만세삼창을 하였다.

명창으로 소문난 김일룡은 ≪아리랑≫까지 불렀다. 흥겹고 생기발랄한 원무곡이나 씩씩한 행진곡을 불러야 할 그런 축제의 날에 강쇠같은 남아대장부 김일룡이 ≪아리랑≫과 같은 비가를 부른 것은 상식밖의 일이였다.

김철이 김일룡의 팔을 흔들면서 물었다.

≪일룡형님, 이 좋은 날 하필 그런 노래는 왜 불러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나두 모르게 아리랑이 쏟아져나왔구나. 어쨌든 우리는 숱한 고비를 넘지 않았니.≫

김일룡은 노래를 그치고 눈물이 글썽해서 김철을 돌아보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한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날을 위해 실로 얼마나 험한 시련의 고개들을 넘어왔던가. 김일룡의 한생은 그대로 그 시련의 축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독립군으로서 민족주의운동도 해보고 공산주의운동도 해본 사람이였다. 조선에서도 살아보고 만주에서도 살아보고 연해주에서도 살아본 풍운아였다. 한숨도 쉬고 눈물도 많이 흘린 수난에 찬 생애였다.

≪아리랑≫은 그 생애를 집약한 것이다. 한숨을 웃음으로 바꾸고 좌절에서 돌격에로 넘어가야 할 그 력사의 분기점에서 김일룡은 ≪아리랑≫으로써 곡절많은 과거를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의 기쁨을 푸른 하늘밑에서 마음껏 노래한 것이였다.

그때 로상에서 류본초선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유격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가. 나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선생에게 말없는 감사를 드리군한다.

우사령부대에서 담판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이 바로 류본초선생이였다. 그는 우리가 성시를 떠날 때 멀리 군영밖에까지 따라나와 이제는 서로 적이 아니라 형제로, 우군으로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손을 굳게 잡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때려부시자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선생이 세상을 떠나시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안도성시에서의 잊지못할 담판의 나날과 육문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우리는 우사령과의 담판에 성공함으로써 유격대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화하고 우리와 련합하여 일제와의 항전을 벌일 수 있는 동맹군을 가지게 되었다. 담판의 성공은 또한 우리에게 애국애족의 대의를 내세운다면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타국의 민족주의자들과도 통일전선을 뭇고 공동투쟁을 벌일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 신심은 그 이후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나의 정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고 생각된다.

나는 사상과 리념이 다른 민족주의자들이나 복잡한 생활경력을 가진 자산계급출신의 각계각층 인사들을 포섭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일군들을 만나게 되면 우사령과 담판하던 경험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도량을 넓혀주군 하였다.

(내일 계속)

유격대창건을 선포한 소사하 무주툰전경

송시

만경봉

삼각산에 오르면 보일까
지리산에 오르면 보일까
내 아직 한번도 가보진 못했어도
마음의 창을 열고 간절히 바라보는
아 만경봉 만경봉

오르면 평양의 일만경치 한눈에 볼 수 있어
그 이름도 만경봉이라는데
내 언제면 가보려나
언제면 그 언제면…

4월의 이 봄날엔
진달래 그리도 멋있다는데
아마도 그건 주석님의
환하신 미소 비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기슭으론
대동강 유유히 흐른다는데
그것 역시
인덕의 바다로 굽이치는
민심의 흐름을 닮아서겠지

사철 푸르러
영원의 빛에 물든 소나무 숲속으론
영생기원의 노래마당 펼치려
목청 고운 새 다 날아들겠지

아
주석님 탄생하신
고향땅 만경대의 봉우리여서
그리움의 절정에 너 솟아있는거냐
숭배심의 정상에 너 빛발치는거냐

김일성!
존함 그대로 태양이신 주석님을
세기의 창공에 받들어 올려
만경봉 너는 태양봉이어라

한줄기 스치는 바람결에도
우리 겨레 하늘처럼 믿고 살던
주석님 사랑의 숨결이 어려
만경봉 너는 하늘봉이어라

주석님 그대로이신 **김정일**영수님
만경봉 봄빛을 삼천리 가득
통일의 봄빛으로 펼쳐가시니
만경봉 너는 통일봉이어라

흠모

주체사상은 세계 수억만 인민들 속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최근 쿠바에서 진행되었다.

전람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들 그리고 우리 나라 도서들,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우리 나라 명승지들을 보여주는 사진들,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람회장은 수많은 참관자들로 하여 연일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그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쿠바의 한 도서관 사서 프란씨스까 로드리게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따라 배우려는 열의가 독자들 속에서 날을 따라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전 풍부화시키고 계시는 주체사상은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 속에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그들의 가슴속에 투쟁의 불씨를 심어주고 있다.

나는 혁명하는 사람들은 주체사상을 학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쿠바의 한 출판사 기자 페글라 에쓰게레 알폰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노작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을 밝혀주는 귀중한 저서들이다.

우리는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경험을 따라 배우기 위하여 이 저서들을 깊이 학습할 것이다.

쿠바의 한 방송기자 씨라 뻬파사 싼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조선인민이 건설하고 있는 유경호텔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들었는데 사진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

조선에서는 지난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맞으며 광복거리와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는데 이것은 조선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의 결과이다.

잡지 ≪몬까다≫편집원 아무델리오 뻬뜨레로는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구축된 콘크리트장벽을 찍은 사진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저렇게 콘크리트장벽이 구축되어 있는데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아무런 장벽도 없다고 하면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나는 **김일성**주석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에 따라 조선이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바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진정으로 조선의 통일을 원한다면 콘크리트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 사이에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회창은 반민족반통일역적

어물전 망신을 꼴뚜기가 시킨다고 지금 이회창이 지경밖에 기어나가서까지 반민족반통일행위를 일삼고 있어서 민족의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반민족반통일역적≫ 오일씨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국노가 하는 짓이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매국역적질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이회창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채택으로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해 반민족반통일역적행위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민족반역적인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회창은 일본행각시 북을 걸고들면서 무슨 신뢰성을 운운했고 있지도 않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에 대해 떠드는 등 별의별 험담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세계의 지탄과 배격을 받고 있는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적극 지지하며 한일양국의 공동대처라는 주제넘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친일역적의 핏줄을 타고난 이회창에게서 온전한 소리가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푼짜리도 안되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마치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민족반역행위를 거리낌없이 하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이 민족을 반역하고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역적행위를 한 것은 비단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회창은 미국에까지 가서 상전들을 찾아다니며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앵무새처럼 외우고 남북대결과 북미대결을 극도로 고취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부시의 한국행각시에는 있지도 않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떠들며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적극 지지하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것은 이회창이 ****와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도 서슴없이 팔아먹는 더러운 매국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과 북 사이에는 여러 차례의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세차례에 걸쳐 이산가족상봉이 마련되는 등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에 유리하게 흐르던 한반도정세는 미국에서 부시의 집권과 대북강경책으로 해서 대결과 전쟁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부시는 남과 북이 합의하고 채택한 6.15공동선언을 애당초 달가와하지 않았습니다. 부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극력 반대하면서 북에 대해서는 강경고립압살정책을 실시하고 남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계속 빨라진다며 속도조절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승인하에서만 남북관계를 가지라고 강박했습니다. 또한 9.11사건을 코에 걸고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비상경계조치를 내리게 하고 남북장관급회담도 결렬시켰으며 이산가족상봉도 차단시키는 등 남북관계를 극도로 냉각시켰습니다. 이처럼 6.15공동선언이 민족의 의사와 염원에 맞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이회창이 한조각의 민족적 양심이라도 있다면 6.15공동선언이행을 악랄하게 반대하고 있는 미국에 항의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공동선언을 **말살하는 미국에 추종하고 그의 비위를 맞추는데만 급급하면서 터무니없이 북을 걸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6.15공동선언은 안중에 없이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미국의 졸개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회창이 반민족반통일역적이라는 것은 또한 그 자신이 6.15공동선언을 악랄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선언이고 통일지향선언이며 민족대단결선언입니다. 하기에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인류가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온갖 못된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인류가 커다란 환희와 격동속에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을때 TV를 끄고 딴전을 부린 이회창이고 보면 그의 반민족성과 반통일성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바로 이런 자이기에 6.15공동선언이 실천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흥분해) 막아나섰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상호주의를 떠들며 퍼주기라는 감투를 씌운 것도 이회창이고 끊어진 남과 북의 철로를 잇는 경의선복원공사에 대해 남침통로가 개설된다고 야단법석한 것도 이회창이며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쾌재를 올리며 기뻐한 것도 이회창입니다.

지난해 8.15를 계기로 평양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이 성과리에 개최되자 여기에 참가했던 남측대표들의 정당한 방북활동과 관련해 무슨 돌출사건을 만들어 이 땅에 신매카시즘소동을 벌이는 등 이회창의 반통일행위에 대해 꼽자면 끝이 없습니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민족의 명부에서 제거해야 할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역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 민중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시대의 역적 이회창을 역사의 심판대에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이북을 시비하고 통일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이 땅의 통일이 아니라 전쟁이 당장 터질 수 있습니다. 반민족반통일 미치광이인 이회창이 절대로 대통령감투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5일~6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4월 6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발표 9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발표 9돌이 되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는 주석님의 저작이야말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위대한 기치라고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재야인사 박모씨는 주석님의 이 저작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진리성이 더욱 깊이 새겨져 탄복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이념적 기초,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의 창립,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 그리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주석님의 이 민족대단결사상은 분열된 우리 민족의 현실태와 분단민족의 설움을 안고 사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써 민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조국통일방안이다. 이것은 숭고한 민족관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만이 내놓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통일강령이다. 정말 주석님의 이 저작을 보면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주석님의 한생의 노고가 안겨와 머리가 숙여지고 민족대단결의 길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책동이 우심하지만 주석님께서 천명하신 민족대단결강령이 있어 우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다.≫

한양대 김모학생은 주석님의 이 저작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삶과 투쟁의 좌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을 위해 정치, 군사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부터 개인의 사적재산인정과 보호문제 그리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족대단결의 실현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진정 주석님의 이 저작은 애국애족의 숭고한 사상으로 일관된 민족대단결의 대백과전서로써 온 겨레를 통일에로 부르는 화해와 단합의 기치, 우리 민족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의 헌장이다. 주석님의 이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을 받드는 길에 통일이 있고 민족의 융성번영이 있다. 나는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받드는 길에 혼신을 다바치겠다.≫

비전향장기수 오형식씨 은정어린 생일 일흔돌상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비전향장기수 오형식씨에게 은정어린 생일 일흔돌상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신 생일상이 5일 오형식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빈농가에서 출생한 오형식씨는 6.25전쟁시기 의용군에 탄원해 인민군대에서 미제침략자들과 주구들을 반대해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전후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31년간이나 철창속에서 교형리들의 야수적 고문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 신념을 지켜 끝까지 싸웠습니다. 은정어린 생일 70돌상을 받아안은 오형식씨와 가족들, 비전향장기수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고 방송이 전했습니다.

공안당국의 범청학련 남측본부탄압 규탄

범민련 대전충남연합은 지난달 29일 ≪공안당국의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대한 국정원의 탄압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이것은 6.15공동선언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인 폭거이며 한반도에 전쟁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틈을 타서 통일애국세력을 말살하려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위한 단체라면서 그런데 국정원이 국보법을 휘둘러 통일애국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탄압하고 그 후원회 회원들까지 구속하는 행위를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탄압은 민족공조에 역행하고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려는 반공보수집단의 책동외에 다름이 아니라면서 공안당국의 탄압을 통일애국세력의 단결된 힘으로 분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국정원해체와 국보법철폐, 이적규정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외압의혹진상규명 및 ≪F-15K≫내정철회요구

자통협, 민주노총, 통일연대를 비롯한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서울에서 외압의혹진상규명 및 ≪F-15K≫내정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미국제 전투기 평가내용의 공개와 선정일정중단 등 모두 7개 사안의 요구를 국방부를 비롯한 당국에 제기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국방부당국이 차세대전투기도입과 관련해 북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것은 남북화해와 평화군축의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제 전투기가 선정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F-15K≫내정결정을 철회한후 차세대전투기도입예산을 동결하며 추가비용지불승인 등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제2의 히로시마 오늘에 본다

미국이 인류를 대상으로 원자탄을 투하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끔찍한 참사가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과는 대비도 안되는 엄청난 핵전쟁위협이 미국에 의해 감행되고 있습니다.

≪제2의 히로시마 오늘에 본다≫ 김현규씨 자리함께 했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최근 부시정권의 대북강경고립압살책동이 광란적이고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가 미국의 대북***한반도전체를 핵참화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의 이 가공할 ***각계 국민들과 지구촌 평화애호민중들은 한반도가 제2의 히로시마가 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심심한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러한 핵전쟁의 위기를 조성한 미국에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땅을 황폐화시키고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덮씌우려는 미국의 반인륜적인 대북핵공격책동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에 빚어졌던 히로시마 사건에 대해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현규 : 세인들이 다 아는 세칭 히로시마 사건은 지구상에서 인류를 반대해 감행된 첫 핵사용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시기 미국은 대일전쟁의 조속한 종결과 전후 세계제패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1945년 8월 6일 평화적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일본의 히로시마에 첫 원자탄을 투하하는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이 반인륜적 학살만행으로 인해 무고하게 죽은 사람만도 10여만에 달하고 오늘까지도 그 피해자들이 그때 생긴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를 대상으로 핵폭탄공격을 명령한 트루만 미국대통령은 세인들로부터 20세기의 극악한 살인마로 낙인되였고 미국은 최대최악의 핵범죄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회자 : 히로시마사건은 미국이야말로 세계최초의 핵사용국가이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국가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미 역사의 수치스러운 한 페이지로 얼룩진 이같은 범죄행위가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다름아닌 우리 한반도에서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월 8일 미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비밀보고서≫에 의하면 부시행정부는 군부에 이북을 포함한 7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비상계획을 작성하며 일정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핵무기들을 제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나라들에 대해 상용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는 지하목표에 대한 공격 그리고 생화학무기공격에 대한 보복공격,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상황변화에 대처한 대응 등의 목적으로 새로운 핵공격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미국은 ≪핵태세 검토비밀보고서≫에서 특히 이북을 가장 위험하고 적대적인 국가로 간주하고 핵선제공격의 제1번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획이 발표된후 미국 지배층과 미국 출판보도물들의 분석자료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핵공격계획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중국, 이북, 리비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 7개 나라에서 러시아는 자본주의화 되었다는 것, 중국은 개혁개방되었다는 것, 시리아, 리비아, 이란은 아직 힘이 약한 나라이라는 것, 때문에 이 나라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라크와 이북인데요. 이라크는 걸프전쟁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때리면 때리는대로 넘어진다는 것, 오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이북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의 핵공격계획에 촛점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이북에 대한 핵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걸 웅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북을 핵무기로 공격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왔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사실 이번 ≪핵태세 검토보고서≫가 세계면전에 미국의 흉악한 자태를 드러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거죠. 그 수면아래에 잠겨 있는 미국의 대북핵정책은 엄청나게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북에 대한 핵무기사용정책을 실질적으로 계획한 것은 반세기가 더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반도전쟁시기 미국호전광들은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트루만은 한반도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9년 4월과 1950년 5월 두차례에 걸쳐 미국의 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원자폭탄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1953년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자리에 오른 아이젠하워도 한반도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공공연히 제창했습니다. 한반도전쟁에서 미군이 수세에 몰릴 때마다 미국호전광들은 실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1952년부터 1953년기간에만도 핵무기사용모의를 22번이나 벌였다고 합니다.

사회자 : 전후에도 미국은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면서 핵무기사용계획을 재검토하는 한편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숱한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남 전역에 배비되어 있는 미국의 핵무기실태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1천여개의 핵무기를 끌어들였습니다. 오늘 이 땅은 극동지역전체에 배비된 핵무기의 절반이상이 집중된 극동 최대의 핵기지로 핵무기가 전개된 집중도에서 세계 제1의 핵기지로 되었습니다. 동두천과 춘천, 평택일대에는 각종 핵미사일들이 전개되어 있고 오산, 군산비행장들에는 핵전투폭격기 그리고 광주에는 각종 핵장비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산미공군기지는 핵무기의 중심적 저장기지일뿐 아니라 대규모의 핵공격기지입니다. 이 군산미공군기지는 1980년대에 이르러 미국이 유일하게 공식인정한 핵군사기지입니다. 그곳에는 24시간 비상대기상태에 있는 ≪F-16≫전투폭격기들로 구성된 긴급비상전투폭격기부대가 배치되어 있고 수백발의 핵폭탄, 핵포탄, 핵지뢰 등이 콘크리트 원형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언론들이 군산미공군기지를 아시아에서 유일한 미국의 해외 핵전략용 공군기지로 낙인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 미국은 이 땅을 핵군사기지로 만들었을뿐아니라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진행된 팀스피리트한미합동전쟁연습인데요. 미국은 국군과 함께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타격수단들과 수십여만명의 병력을 동원해 북침전쟁연습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연습은 이북을 반대하는 핵전쟁을 도발하고 그것을 아시아와 세계에로 확대할 것을 노린 무모한 핵시험전쟁, 핵예비전쟁이였습니다 .

사회자 : 그렇죠. 역대 미국정권의 핵전쟁책동은 그후에도 계속됐지 않았습니까. 특히 부시정권이 등장한 이후 미국의 한반도핵침략책동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지난해 1월 새로 집권한 부시행정부는 집권 첫날부터 이북을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면서 있지도 않은 미국의 핵 및 미사일위협을 걸고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강행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북이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을 다그치고 있다느니 최소한 1개 내지 2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느니 핵탄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북의 핵개발의혹을 저지시키지 않으면 세계가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여론을 대대적으로 유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지명, 공격하면서 반북적대시정책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시정권은 이북을 핵공격대상으로 지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북에 대해 선제핵공격을 가할 기도를 이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는 처음입니다. 부시행정부는 이와 때를 같이해 이번에 팀스피리트전쟁연습의 재판인 한미통합전쟁연습을 벌여놓았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이북에 대한 선제핵타격계획을 실천에 옮겨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회를 마련하려는 극히 위험한 핵전쟁도발책동입니다.

사회자 : 부시행정부의 핵전쟁책동으로 인해 오늘 한반도는 지구촌에서는 가장 큰 핵전쟁위험지역으로 되고 있죠. 한반도에 조성된 핵위협상황은 현실적으로 히로시마사건을 훨씬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공할 현황을 직시해보면 50여년전에 있었던 히로시마사건은 대비될 수가 없을 정도로 **파괴적이고 참혹한 것입니다. 우선 미국이 이북을 반대해 사용하려는 핵무기는 그 파괴력에 있어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탄****수십수백배로 **것입니다. 또 히로시마사건은 미국이 일본의 **시에 원자탄을 투하한 범죄행위는 오늘 한반도에서 ***면 삼천리 이 땅 전체가 불모지로 되는 끔찍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사회자 : 생각만해도 몸서리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반만년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 민족이 오늘에 와서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의 제단위에 던져져 핵참화를 뒤집어쓰게 될 위기에 직면했으니 이게 얼마나 통분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지난날의 히로시마사건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은 남과 북, 여당과 야당, 온 민중, 온 민족이 일치단결해 반전반핵투쟁에 분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향 각지의 각계 민중은 우리 민족을 통째로 몰살시키려는 미국의 천만위험한 대북핵공격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겁니다. 바로 그 길에 이 땅 민중들의 생존도 달려 있고 꿈에도 소원인 조국통일의 숙원도 잇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5일~6일

조국통일의 위대한 대강

조국통일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주석님의 생전의 뜻이자 우리들에게 남기신 최고의 유지이다.

김일성주석님의 유지를 받드는 데서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는 것은 통일위업수행에서 관건적인 문제이다.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는 유일한 출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이다.

민족의 대단결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 82(1993)년 4월6일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우선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를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접수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결이란 본질에 있어서 마음과 마음의 합침이며 이것은 요구와 이해관계의 일치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제시한 총적 목표 즉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창립은 매우 깊은 의미를 안고 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형식의 통일국가창립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민족의 대단결은 오직 현존제도, 현존사상에 대한 인정에 기초할 때에만 이룩될 수 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또한 이념적 기초와 원칙을 봐도 민족의 자주적 본성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민족구성원들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이것은 민족대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담보로 된다.

주지하다시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단결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켜 나간다면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가 비록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통일로 가는 길에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칠 수 있고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강령이든지 그것이 공정한 것으로 접수되자면 강령의 목적과 과제 그 수행방도가 어느한 계급, 계층, 단체의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밝힌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보아도 남과 북의 특정한 지역, 단체나 계층, 정당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지역, 단체, 계급, 정당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남과 북이 일체 정쟁을 중지하자는 것이나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접촉왕래,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와 단합을 도모하자는 것이나 다같이 남과 북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보를 보호하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및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며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본, 재산 그리고 외국자본과의 공동이권을 보호하자는 것도 어느 쪽에도 불이익이 될 수 없으며 누구도 자기의 기득권상실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따라서 통일운동의 길에서 단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요구와 방도를 명시한 위대한 정치강령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밝힌 획기적인 정치강령이다. 한민전의 전위들과 애국민중은 오직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침으로 삼고 통일운동에서 주체적 역량을 꾸리는 사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김남진 - 구국전선
주체91, 4월 1일

선군정치에 조국통일이 있다

우리 민중은 선군정치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해 주시는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것은 선군정치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자주정치이고 민중에게 행복을 안아오는 행복의 정치이며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참정치이기 때문이다.

선군정치가 있어 오늘 민족의 안녕과 조국의 통일은 확고히 담보되어 있다.

조국통일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적 대단합을 실현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조국통일이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문제라는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는 6.15남북공동선언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영도로 이루어진 알찬 결실이라 하겠다.

자주정치의 정화라 할 수 있는 선군정치만이 우리 민중을 미국의 식민지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 민족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갈 수 있게 한다. 바로 선군정치에 한반도의 평화도, 통일도 있는 것이다.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이 땅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온 삼천리강토가 초토화되고 만다. 아마 이 땅은 잿더미 속에 묻혀 황량한 폐허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남민중은 선군정치의 덕을 보아도 크게 보고 있다.

선군정치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성업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선군정치로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는 주체84(1995)년 1월1일 군시찰에서 여실히 확인되었다. 그분께서는 민족최대의 국상이후 첫 현지지도를 군부대시찰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며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정치비전의 제시라는 시대적 의미를 갖는 선군정치의 역사적 행보를 펼치시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강대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되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은 확정적이라고, 강대한 인민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의 큰 자랑이라고 언명하시었다.

선군정치를 통한 민족통일은 막강한 군력에 의거한다고 하여 무력통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남에서는 군사문제와 결부시켜 통일을 논하면 의례히 북침무력통일을 뜻하는 것이지만 선군정치는 반대로 군사문제와 통일을 결부시킬 때 그러한 북침무력통일기도를 저지시키고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정치이다.

한마디로 선군정치는 인민군대의 총대위에 통일의 전제인 평화가 있다는 그것이다. 이러한 선군정치로 자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불면불휴의 선군영도로 이북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군강화에 기울이신 장군님의 노고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분께서는 지난해에만도 3만여리의 전선길을 이어가시며 1백30여개단위의 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셨다 한다. 그것도 쪽잠과 주먹밥으로 낮과 밤을 보내시고 비바람, 눈바람을 맞으시며 휴일도, 명절날도 없이 말이다.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온 겨레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통일성업실현에로 이끌어주는 인덕정치, 광폭정치이기도 하다.

선군영도의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그분께서는 우리 이남의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연예인 등 각계층 인사들과 통일운동가들을 따뜻이 만나주시고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야 한다시며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사랑과 은덕을 다 베풀어주시었다.

금강산의 관광길도 열어주시어 조국의 향취를 마음껏 느끼도록 해주시었다. 그리고 분단사상 처음으로 되는 남북노동자통일대회, 남북농민통일대회, 6.15민족통일대토론회, 8.15민족통일축전 등 민족단합의 역사적 새장을 펼쳐주시며 7천만 온 겨레를 조국통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주시었다. 결국 선군정치는 민족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걸맞게 그리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인 것이다.

선군정치에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이 있고 민족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선군정치로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켜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갈 때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이룩되고야 말 것이다.

박남순 - 구국전선
주체91, 4월 1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4월 6일

김대중대통령 특사가 돌아 갔다

남측의 요청에 따라 평양을 방문하였던 김대중대통령의 특사인 림동원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 6일 판문점을 통과하였다.

판문점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완수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특사일행을 전송하였다.

비전향장기수 오형식 생일 일흔돐상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 오형식에게 생일 일흔돐상을 보내시였다.

생일상이 5일 그에게 전달되였다.

주체21(1932)년 4월 5일 경기도 시흥시의 빈농민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약 의용군에 탄원하여 인민군대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전후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그는 31년간이나 철창속에서 교형리들의 온갖 야수적인 고문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신념을 지켜 끝까지 싸웠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전사로서의 절개와 지조를 꿋꿋이 지켜 낸 그를 사랑의 품에 안아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 주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따뜻이 보살펴 주고 있다.

주석의 빛나는 한평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조선인민과 외국의 벗들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억하고 있다.

주석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도예술가이시였다.

주석께서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영원한 광명의 빛을 안겨 주시였다.

그이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15(1926)년 10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을 작성하신 때로부터 주체83(1994)년 7월 6일까지 집필발표하신 수많은 로작들가운데서 지금까지 출판된 로작들은 3, 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로작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108개 나라에서 63개의 민족어로 출판되였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수많은 나라에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나와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다.

근 반세기동안 그이께서는 8, 000여차에 걸쳐 전국의 1만 8, 000여개의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장장 55만여의 로정을 이어 가시였다.

주석께서는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광복후부터 지금까지 50여차에 걸쳐 연 80여개 나라를 공식 및 비공식 방문하시였으며 국가수반, 당수반, 정부수반을 비롯하여 연 7만여명의 외국손님들을 접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혁명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와 공화국영웅칭호(3차), 로력영웅칭호를 받으시였다.

그리고 세계 7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들로부터 최고훈장과 메달, 30여개 도시의 명예시민칭호, 외국의 이름 있는 20여개 대학들에서 명예교수와 명예박사칭호를 받으시였다. 그리고 170여개 나라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 진보적인민들로부터 16만 5, 000여점의 선물을 받으시였다.

주석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경모의 정이 발현되여 중국과 몽골에 그이의 동상이 건립되고 세계적으로 ≪국제**김일성**상≫이 제정수여되고 있으며 100여개 나라 480여개의 거리, 기관, 단체들에 주석의 존함이 모셔 졌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생애는 20세기와 더불어 흘러 온 절세의 위인의 거룩한 한생이였다.

일본에 있는 남조선 가수 김련자일행을 위한 연회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조직위원회에서는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을 위하여 5일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축전조직위원회 장철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인 문화성 송석환부상, 평양시인민위원회 조영화부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김일성주석은 통일조선의 영원한 수령

조선통일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글 발표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기 듀프르가 ≪**김일성**주석은 통일조선의 영원한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글에서 조선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령도자를 모시고 있기에 조선 인민은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것이며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통일조선의 수령으로 영생하실것이라고 썼다.

그는 자기가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에 나서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후부터였다고 하면서 진보적인류로부터 가장 걸출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 받으시는 그이를 만나뵙던 영광의 순간들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주석께서 자기를 여러차례 만나주시고 조선의 통일방안과 원칙,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그이의 말씀들에서 주석께서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얼마나 고심하며 끝 없는 정력을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였다고 썼다.

그는 오늘 조선의 통일위업이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조선의 통일위업에 쌓으신 업적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각하의 남다른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받아 온데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더 과감히 일 해나갈 결의를 피력 하였다.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발표 9돐을 기념

≪로동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우리 조국과 더불어 영원할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라고 강조하였다.

6일부 신문은 로작발표 9돐에 즈음하여 개인필명의 기념론설을 실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 로작에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을 전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로 규정하시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며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할데 대한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 주시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천명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과 함께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그 지위를 뚜렷이 밝혀 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김일성**주석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해 주신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밑천이 있고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되고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민족의 배심은 든든하다고 지적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자주통일의 기관차를 더욱 세차게 몰아 갈것이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태양절과 건군절에 즈음한 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태양절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인디아, 에짚트, 뻬루, 메히꼬에서 조선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와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3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조선도서들과 수공예품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여 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영원히 인류의 마음속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등 조선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한편 태양절에 즈음하여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벌가리아에서는 발칸태권도구락부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수령결사옹위의 혁명군가 부르며 선군시대를 빛내이자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1월 18일

지금 온 나라에는 전례 없는 혁명적열정과 락관이 차넘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새해 첫 공연을 진행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혁명군가가 올해의 총 돌격전의 우뢰소리로 장쾌하게 울려 퍼졌다. 2002년의 시작과 함께 울린 혁명군가는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일 대진군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차게 부르는 진격의 나팔소리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 힘 있게 맥박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의 군가를 선군시대의 진군가로 높이 부르며 다시한번 영웅조선의 힘과 기개를 과시할 불 타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노래는 군중을 교양하고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데서 큰 역할을 합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신심과 랑만에 넘치는 노래를 부르면서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 냈습니다. ≫

혁명의 노래는 혁명군대와 인민의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이다.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서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애국애족의 사상, 필승의 신념과 무한대한 용기를 북돋아 주는 혁명적노래의 위력은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총대를 틀어 쥔 자주적근위병,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의 분출인 군가는 혁명적노래의 정화이다. 총대와 같이 도고하고 돌격의 함성과 같이 기세차며 열병대오의 발구름소리같이 힘 있고 박력 있는 전투적이고 락천적인 혁명군가는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세차게 끓이는 사상적포화이며 멸적의 승전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선혁명의 전 력사적로정에서 언제나 높이 부른것은 수령결사옹위의 군가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와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일관된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면서 준엄한 시대의 폭풍우를 뚫고 승리만을 떨쳐 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온 투사들과 인민들이 준엄한 격전장에서 언제나 높이 부른 노래도 빨찌산의 혁명군가였고 가렬한 전화의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타승하는 판가리결전에서 필승의 무기로 간직한것도 혁명군가였다.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수령옹위의 혁명군가로 심장을 불 태우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였고 재더미만 남은 빈터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혁명군가의 위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에 최고의 높이에서 발휘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독특한 음악정치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장이시다. 한편의 노래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는것이 **김정일**동지의 일관한 립장이다.

혁명의 노래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틀어잡고 혁명군가의 위력으로 시대와 혁명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정치실력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군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혁명의 불, 영웅적위훈과 기적의 불길을 지피시며 엄혹한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물리치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위대한 승리와 강성대국건설의 새 시대를 안아 오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혁명군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불 타게 한 사상정신적량식이였고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친 혼연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게 한 무기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최고사령관의 사상적대변자인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혁명군가에 발걸음을 맞추며 상상할수 없는 시련의 고비들을 승리적으로 돌파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진격로를 과감히 열어 놓았다.

혁명군가의 위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러 일으키시여 혁명군가와 함께 승리하는 자랑찬 현실을 펼쳐 놓으신것은 위대한 백두의 령장이시며 음악정치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선군사상과 음악중시사상이 완벽하게 결합되여 창조된 우리의 혁명군가는 제국주의자들이 ≪만능≫이라고 자랑하는 핵무기로도 당할수 없는 불패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군대마다 군가가 있지만 위대한 최고사령관동지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여 온 우리 혁명군대의 군가처럼 무한대의 위력을 가진 혁명의 진군가는 없다.

지금 우리 인민은 수령절대숭배사상과 결사옹위정신이 맥박치는 혁명군가를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부르며 신심높이 투쟁하고 있다.

온 나라에 혁명군가가 높이 울려 퍼지는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면모는 주체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닮아 가는 우리 인민들의 백승의 기상의 발현이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 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 인민의 거울이 되고 있으며 혁명대오의 기수로 자랑 떨치고 있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닮아 가고 혁명군대의 사상과 정신, 투쟁기풍이 전 사회적인 풍모로 전환되고 있는것이 선군시대의 긍지 높은 모습이다. 혁명군대의 사상과 정신을 체질화하는것이 선군시대의 참다운 혁명가로 준비하는 길이라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일을 해도 인민군대식으로 본때 있게 일하고 노래를 불러도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며 투쟁과 생활도 전투적으로 하고 있다.

혁명군가가 높이 울려 퍼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신심높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락관주의의 뚜렷한 발현으로 된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전진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유한 정신적기질이다.

지금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돌격전을 힘 있게 벌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기는 비상히 높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지나온 혁명의 년대들을 승리에 승리로 수 놓아 온것처럼 강성대국건설에서도 다시한번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떨치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 타는 맹세이고 필승의 의지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군사적압력도, 고립압살책동도 미래를 락관하며 신심에 넘쳐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적힘을 당해 낼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가 있고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한다 하여도 두렵지 않으며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 갈것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 섰다.

선군시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불패의 군력으로 이 땅우에 일대 민족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력사의 새 시대이며 총대로 개척된 우리 혁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보람찬 시대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는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2002년을 선군시대의 가장 뜻 깊은 력사의 해로 빛내여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백두령장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군대와 인민의 거대한 사상정신적힘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될 올해의 총 돌격전에서 우리가 더욱 높이 불러야 할 노래는 백두산혁명강군의 군가이다.

혁명군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식으로 투쟁하고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숨결이 약동하는 선군시대의 진군가이다. 혁명군가의 사상과 정신이자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정신이고 혁명군가의 기백과 위력이자 천만대적도 단숨에 무릎 꿇게 하는 백두령장의 기백과 위력이다. 우리는 혁명군가를 선군시대의 영원한 진군가로 높이 부르며 백두산장군의 대담한 공격정신과 배짱, 기백으로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 **김정일**동지식으로 태양민족의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뜻 깊은 올해에 위대한 백두의 령장들을 칭송하는 수령숭배의 혁명군가들이 선군시대의 메아리로 더욱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수령숭배, 장군칭송은 혁명군가의 핵이다. 우리 혁명군가의 력사는 우리 수령제일주의의 력사, 수령숭배, 장군칭송의 력사인것으로 하여 더욱 긍지 높은것으로 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높이 부르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같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숭배의 찬가, 열렬한 충성의 노래는 이 세상에 없다. 수령숭배, 수령결사옹위의 혁명군가를 심장으로 부르는 군대와 인민은 지구가 깨여 진다고 해도 솟구쳐 오를 힘이 있으며 절해고도에서도 외로움을 모르고 위대한 장군의 병사, 위대한 수령의 전사로 한생을 빛내일수 있다.

우리는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장군칭송의 노래, 수령숭배의 혁명군가를 조선의 제일혁명군가로 높이 울려 가야 한다. 위대한 선군령장들의 뜻 깊은 탄생기념일들을 맞으며 수령숭배의 혁명군가, 수령결사옹위의 진군가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은 선군시대의 전 인민적사상감정이다. 우리는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목 메여 부르며 맨 주먹으로 강성대국의 대통로를 열어 제낀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처럼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심장에 안고 투쟁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혁명군가에 맥박치는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절대불변의 넋으로 새겨 안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뜻도 마음도 운명도 하나가 된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로 삶을 빛내여야 한다.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심장으로 부른 ≪ㅌ.ㄷ≫ 열혈투사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깨끗한 충성으로 받드는 선군시대 자주적근위병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혁명군가의 정신과 기백에 발 맞추어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 돌격전을 힘차게 다그쳐야 한다.

우리 혁명군가에 나래치는 투쟁정신은 혁명적군인정신이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은 무조건 해내고야 만다는 투철한 결사관철의 정신, 그 어떤 시련도 뚫고 더 높이, 더 빨리 전진해 나갈 주체조선의 기상이 우리 군대의 군가에 비껴 있다. 우리는 인민군군인들처럼 언제 어디서나 혁명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찬란한 현실로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처럼 공장과 발전소를 하나 건설하고 토지를 정리해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 없게 해제끼며 과학기술의 목표를 점령하고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도 인민군대식으로 최첨단목표를 돌파하고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하여야 한다. 혁명군대의 기백과 정신으로 힘차게 떨쳐 나설 때 우리에게는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며 올해를 옹군애민사상만세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는 군민대행진의 해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와 우리 인민은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일심일체이다. 열렬한 조국애, 인민애를 지닌 인민군대를 자기의 수호자로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우리는 인민군대가 부르는 애민의 군가에 옹군의 노래로 화답하며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맞는 뜻 깊은 올해에 우리 군대제일주의정신이 온 나라에 더욱 세차게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백두에서 시작된 원군의 길을 선군시대에 더욱 굳건히 이어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기풍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온 사회에 선군시대의 정서와 랑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희망이고 포부인 강성대국이 현실로 꽃 펴나는 선군시대는 끝없이 풍부한 정서와 아름다운 랑만을 낳는 시대로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애국심이 가장 강한 인민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풍모의 체현자로 되게 하는 선군시대의 정서와 랑만은 혁명군대의 정서와 랑만이다. (13면에 계속)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제6회)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4월 6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시간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이론적 업적 가운데서 가장 정확한 혁명노선과 정책을 제시하신데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새로운 주체시대의 요구와 우리 혁명의 실천적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인류의 진보적 사상발전사에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새로운 혁명사상이 출현하게 되였으며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그 철학적 기초와 구성체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신 사상이론적 업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새롭게 정립하시여 세계관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킨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혁명적 세계관을 밝혀주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사상발전과 해방위업에 이바지한 주체사상의 중요한 역사적 공헌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사상이론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세계관의 발전이며 세계의 개조발전은 세계관의 발전에 토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세계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 입장을 가져야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자각할 수 있고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시대인 주체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새롭게 밝히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성의 철학적 방법론과는 달리 사람을 물질일반에서 떼내서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천명하고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셨으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고전적으로 정식화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힌 이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시여 세계는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개조되며 사람은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라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를 명시하셨습니다. 뿐만아니라 사람의 이익을 위주로 해서 세계를 대하고 사람의 역할을 기본으로 해서 세계의 개조발전을 대하는 세계에 대한 가장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확립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해서 사회역사에 대한 견해도 근본적으로 혁신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적 운동에는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주체가 있으며 사회의 개조발전은 자연과는 달리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역사적 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주체적 예를 확립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과 사회역사관의 발견은 노동계급의 세계관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과 사회역사관에 의해서 인간은 처음으로 세계의 주인,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기를 발견하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신 사상이론적 업적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근로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을 제시하시여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킨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주체사상은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았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인류의 해방위업에 이바지한 주체사상의 역사적 공헌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과학적인 혁명이론이 없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운동이 전진할 수도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요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과학적인 혁명이론을 명시하는 문제는 혁명의 승패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해서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혁명은 사상적으로 각성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며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해서 추진되고 승리한다는 혁명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히셨습니다. 혁명의 근본목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는 것을 독창적으로 밝히고 그 수행을 위한 혁명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이론과 전략전술을 집대성한 것으로 해서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은 완성된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이론으로 되였습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이 정립됨으로써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은 그 출발적 원리로부터 모든 사상이론적 내용들이 새롭게 혁신되고 자기 발전의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을 창시하신 것은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근본적 전환을 이룩한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혁명이론의 가치는 그것이 인민대중의 이익을 어떻게 옹호하는가에 따라 규정되며 전략전술의 위력은 인민대중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운동, 혁명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해서 밝히고 체계화하심으로써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을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 이론과 전략전술로 전환시켰습니다.

오늘과 같이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혁명이 한치의 좌우편차도 없이 승승장구의 곧바른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기적적인 사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나가시는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이론의 과학성과 진리성, 필승불패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됩니다.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실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인민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한 불멸의 혁명사상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신 사상이론적 업적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영도방법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전면적으로 해명한 것입니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하며 그러자면 과학적인 혁명이론과 함께 올바른 영도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날에는 영도방법문제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이론실천적으로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로 제기되지 못하고 오랜기간 미해결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영도방법 문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에 의해서 비로소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의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제기되고 정연한 사상이론을 체계화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혁명은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주체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대중영도방법 문제에 첫째가는 의의를 부여하시고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영도하시는 과정에 쌓아오신 풍부하고도 귀중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과학적인 영도방법을 창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도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주체의 영도방법이며 영도원칙과 영도체계, 사업방법과 사업작풍과 같은 대중영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는 완성된 영도이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영도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라는 것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당의 유일적 영도에 실현과 혁명적 군중노선의 관철을 대중영도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창조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해 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중영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이론적 해답을 주심으로써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존재로 키우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해서 세상만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지침이 마련되였습니다.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실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인민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한 불멸의 혁명사상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과 과학성, 혁명성과 보편성, 비상한 견인력과 무비의 생활력으로 해서 우리시대의 공인된 지도사상으로 되고 있으며 날을 따라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그들을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5대륙의 100여개 나라에는 1,000여개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거세찬 흐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과학적인 길을 명시해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동보도문 어떤 내용 있나

남북관계 해빙시킨 임 특보의 ≪선물보따리≫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제6차 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반년 동안 냉각기를 가진 남북관계가 ≪원상회복≫되었다.

지난 4월 3일부터 3박4일간 대통령 특사의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 일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과 김용순 노동당 비서와의 회담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도출하고 4월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발표했다.

우선 이날 오전 11시 남북이 동시에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동결≫ 및 ≪원상회복≫이라고 쓴 표현이 눈에 띈다. 공동보도문 2항에서 남북 양측은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그 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방북보고를 하는 임동원특사

이에 따라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6·15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동의한 ≪5대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이 기대된다. 실제로 양측은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이번 특사회담의 성과물 중에서 가장 먼저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상봉장소가 서울-평양 상호방문 형식이 아닌 금강산이라는 점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강산을 상설면회소로 제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서부·동부전선 일부 개방으로 긴장완화 기대

또 남북은 공동보도문 3항에서 ≪쌍방은 남북 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3항은 이번 특사회담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경의선 연결공사 재개는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앞두고 어느 정도 ≪예상된 성과≫였다. 그러나 공동보도문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재개≫를 넘어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공동보도문에서 언급한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경원선(서울~원산)과 7번 국도(부산~나진)를 가리킨다. 경원선의 경우 남측 신탄리역에서 북측 평강역까지 31㎞가 잘려 있고, 7번 국도는 남측 통일전망대~북측 금강산 온정리 구간 13.7㎞가 단절되어 있다.

경의선 연결사업은 남북 경협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5대 합의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남북간 이번 합의가 실현되어 경의선과 경원선이 뚫리면, 서부·동부전선의 일부 개방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완화는 물론이고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남북관계가 후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북이 경원선 복원에 합의한 것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경원선을 연결하려는 러시아측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경우 경원선 연결사업은 경의선 연결사업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 평화사업으로서 이른바 ≪북방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로 발전할 수 있다.

한편 7번 국도의 복원은 육로를 통한 금강산관광 활성화와 직결된다. 남북 양측은 이와 별도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경원선의 남측 복원 대상구간은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7번 도로는 복원 대상구간이 짧기 때문에 동부전선의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공사 착공 10개월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장관회담은 ≪주적≫ 개념 따라 유동적

그러나 장미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남북 양측은 공동보도문 5항에서 ≪쌍방은 남북 군사 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경협 관련 회담은 날짜를 못박은 데 비해 군사 당국간 회담만은 재개 시기와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어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

따라서 공동보도문에서 언급한 ≪군사 당국자 사이의 회담≫이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의 조기 서명을 염두에 둔 실무적 회담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1차 회담에 이어 백두산에서 갖기로 한 의례적 회담(국방장관회담)을 염두에 둔 것인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동원 특사가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일정이 하루 연장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변한 대목이 관심을 끈다.

≪가장 큰 쟁점 사항은 민족공조냐, 외세와의 공조냐 양자 택일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주적론≫ 가지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 민족공조냐, 국제공조냐의 문제는 양자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한·미·일 3국 공조는 이북이 미국이나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조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라는 점을 설명했다. ≪주적론≫ 문제는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열어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

임 특사의 답변에 따르면, 공동보도문에서 언급한 ≪군사 당국자 회담≫은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서명을 위한 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군사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하게 될 2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은 ≪주적론≫이 연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지난해 2월 제5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주적≫ 개념이 철회되지 않는 한 국방장관회담을 열 수 없다는 점을 남측에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열릴 ≪군사 당국자 회담≫에서는 ≪군사적 보장 합의서≫ 말고도 ≪주적 개념≫ 폐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적≫ 개념 폐지를 둘러싼 남북의 설득과 인식의 정도에 따라 경의선 연결공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의 서명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뜻한다.

DJ의 북미·북일 대화 권고 친서 수용

북미관계가 연계된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에 대한 회담결과는 공동보도문이 아닌 귀환 인사말을 통해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임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한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의 내용과 미국·일본이 북측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임 특보는 미일의 메시지 내용과 북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외교관례상 적당하지 않다≫면서도 앞서의 ≪인사말≫ 속에 대충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임 특사는 우선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국제정세와 한반도 긴장방지를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 권고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고 반응을 전했다. 임 특사는 또 ≪김 대통령은 새 정부와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했고 김 위원장도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임 특사는 구체적으로 미국 잭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을 수용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KEDO와의 협의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김 위원장은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도 방문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민간차원의 교류도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김 대통령이 새 정부와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했고 김 위원장도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는 대목이다. 이는 김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클린턴 전 행정부와 상당히 진척된 관계개선 수준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화할 것을 권고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또 임 특사는 북일관계에 대해서도 ≪김 대통령은 과거문제에 현재와 미래를 옭아매서는 안된다면서 행불자 문제의 처리를 권고했고 김 위원장은 일본 적십자사와 회담을 재개한다는 뜻을 언급하는 등 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정일위원장 답방 문제는 ≪NCND≫

임동원 특사는 ≪공동보도문에 들어 있는 (남북관계) 사항들은 김 위원장께서 결단한 것들이다≫고 말해, 회담 첫날 ≪공조≫ 문제와 ≪주적≫ 개념 문제로 난항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과의 5시간 동안의 면담(만찬 포함)에서 ≪결단≫이 내려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임 특보는 국민적 관심사인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문제도 논의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하고 싶고 김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변도 애매모호하지만 임 특보의 해석 또한 긍정도 부인도 않는 ≪NCND≫인 셈이다.

임 특보는 관심을 모은 이북의 ≪아리랑 축전≫과 남한의 월드컵 축구대회 때 고위급 인사의 교차 방문과 관련해서도 ≪(방문기간) 아리랑이나 월드컵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북측이 남측에 월드컵과 연계한 ≪아리랑 축전≫ 관광객 유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벗어난 셈이다.

김당기자
오마이뉴스 2002/04/07

(11면에서 계속)

혁명군가에 맥박치는 혁명적인 정서와 랑만이 오늘의 시대정서로 확고히 지배하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선군시대 혁명적문화의 창조자, 전파자이다. 인민군대가 혁명군가 선창을 높이 울릴 때 전체 인민의 심장이 혁명군가의 열도로 달아 오르게 되고 온 나라가 혁명군가의 기상과 기백으로 들썩하게 된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따라 선군시대를 빛내여 온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혁명군가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사회의 예술활동을 인민군대식으로 참신하고 패기 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의 예술단체들은 한곡의 노래, 한편의 작품을 창작하여도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사상감정이 흘러 넘치는 시대의 걸작들로 내놓아야 한다.

한편의 혁명군가는 수백수천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으로 대중의 심장을 틀어 잡는다. 모든 당조직들은 혁명군가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인민군대의 중대예술소조활동, 군인가족예술활동을 적극 따라 배워 강성대국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기동예술활동을 전투성과 호소성이 강하게 조직진행함으로써 혁명의 북소리가 온 나라를 진감하게 해야 한다.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 할것없이 어디에서나 혁명군가가 삶과 투쟁의 노래로 되고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우리 인민의 미더운 길동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기치 따라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며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뜻 깊은 올해를 반만년민족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해로 빛내이자.(끝)

한반도 화해협력 급물살

이산상봉 28일 금강산서…동해선 연결, 북 대표단 부산 아시아대회 참가 검토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이 전면적으로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기로 하고, 이북이 북-미 대화 재개를 밝힘으로써, 이미 합의된 북-일 대화와 함께 한반도의 화해협력 구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6일 오전 11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에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일시 동결됐던 남북관계를 원상 회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특사는 귀환 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최근 국제정세와 한반도 긴장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권고에 동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뉴욕에서 접촉을 개시했으며, 잭 프리처드 대사의 방북제의를 수용하라는 우리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임 특사는 또 ≪김 위원장은 일본과 적십자회담을 열 뜻을 밝히는 등 일본과 대화 재개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북-미, 북-일 대화를 동시 진행하면서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이달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했고, 경협추진위 2차 회의를 다음달 7~10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음달 중으로 북쪽 경제시찰단이 남쪽에 오기로 합의했으며, 금강산관광 활성화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차 금강산관광 관련 당국회담을 6월11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경의선 철도·도로는 ≪빨리 연결≫하기로 하는 한편, 새롭게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에도 나서기로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동서축의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남북경제공동체로 나아갈 기본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히 뜻이 깊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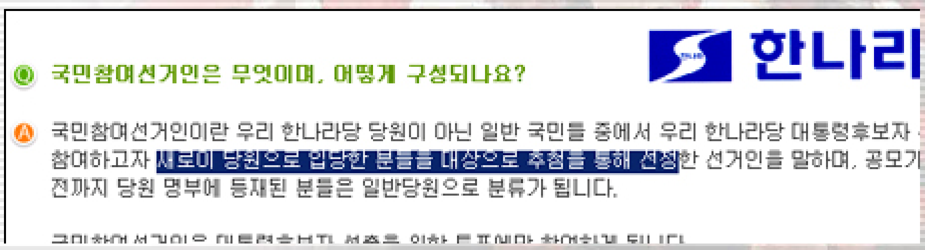
임 특사는 ≪공동보도문에 있는 내용은 (김 위원장과) 중요하게 논의됐고 사실상 김 위원장이 결단을 모두 내렸다≫고 밝혀, 이번 합의에 북쪽 최고당국자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철도·도로를 ≪빨리 연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그동안 늦춰져온 ≪비무장지대 공사를 위한 군사보장합의서≫의 교환·발효와 공사 재개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임 특사는 방북기간 중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쪽 대표단 참가와 백두산 성화 채취·봉송, 개·폐회식의 문화행사 참여 등을 제의했다≫며 ≪북쪽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제훈기자
인터넷 한겨레 2002/04/07

한나라당 경선 당원들만의 잔치?

≪당원 입당해야 참여 가능≫? - ≪국민참여≫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해...



한나라당이 당내 경선에 국민참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과 달리 ≪국민참여선거인단≫ 선정 기준에 ≪당원 입당≫을 전제해 놓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참여의 폭을 제한하고 당 입장에 우호적인 사람만 참여시켜 결국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의 국민경선제가 당내 경선에 국민참여의 폭을 넓혀 형식상 당내 민주화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자 한나라당도 뒤늦게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 등 경선 진행방식도 민주당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민경선이 가져온 부대효과만을 기대하고 민주당의 국민경선이 가져온 국민적 지지의 배경, 즉 국민여론을 반영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벤치마킹 할 생각은 없는 듯 하다. 결국 형식상 국민참여를 보장했지만 효과만 노렸을 뿐 당내 의견만 반영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선은 어디까지나 당내 행사≫라고 못박고 있다. 당적이 없는 국민이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당법에 어긋난다는 것.

실제로 민주당도 경선신청서에 ≪상기 내용을 입당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입당 여부는 사후에 결정할 수 있게 열어놓고 있어 당원여부에 관계없이 경선에는 참가할 수 있다. 형식상으로나마 당원 이외의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한나라당 조직국 홍정용 차장은 ≪민주당도 신청서를 입당원서에 가름하고 있다≫며 ≪정당법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홍차장은 ≪참여폭을 제한시켜 우리 당으로써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원칙대로 진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한은 국민참여라는 취지자체를 무색케하고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국민만 참여시켜 철저히 당의 입장에 유리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나라당 경선에 ≪당원으로 활동하면서라도 당내 민주화에 기여하겠다≫는 국민들의 새로운 의지가 표출될지 ≪당원으로 등록하기 싫어서 국민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미진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07

한통계약직 한강대교 아치 위 ≪죽음을 각오한 투쟁≫선언

한통 계약직 조합원들 비바람속에서 한강대교 고공아치위에 올라가 현안문제 해결 촉구

4월6일 오전 8시 30분 한통계약직노조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한강대교 고공아치위에 올라가 ≪KT계약직 합법파업 480일! 생존권과 고용안정 보장하라!≫, ≪KT와 정부는 책임회피 중단하고 KT계약직 현안문제 해결하라!≫라고 쓰인 플랭카드를 내걸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1시간 여의 고공시위를 통해 한통계약직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날 한강대교 고공시위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조합원 윤병준, 최종현, 김우창씨등 3인이 진행하였다. 윤병준씨와 최종현씨는 8시 20분경 먼저 아치 위에 올라가 플랭카드를 내렸고 김의창씨는 아치 아래에서 두 개의 플랭카드를 잡고 있었다. 아치 위에 올라간 조합원들은 플랭카드를 내린 후 한국통신 계약직문제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한국통신 계약직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파업가 등 투쟁가를 불렀다.

오전 9시경 고공 사다리차를 동반한 119 구조 대원들과 몇몇 경찰이 도착해 대형 공기 매트를 펼쳐 바람을 넣었지만 이내 공기매트가 강한 바람에 뒤집혀 버리고 바람이 다 빠져 버렸다.

9시 5분경 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은 아치아래에서 프랑카드를 잡고 있던 김우창씨에게 구조대원과 함께 고공 사다리차에 함께 올라타 아치위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내려 오라고 설득시켰지만 김의창씨도 고공 사다리 위에 올라가 오히려 구호를 외쳤다. 또한 아치위에 있던 조합원들 역시 내려오는 걸 거부하고 다시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고공 사다리를 내리고 김의창씨를 연행한 후 9시 30분경 다시 고공 사다리를 올려 아치위에 있던 윤병준, 최종현씨를 내려오게 하였다. 이들은 내려오면서도 계속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내려오자마자 경찰은 바로 용산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한편 한국 통신 계약직노조는 고공 시위가 시작되자 성명서를 내고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는 현안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계약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오만 방자한 경총과 한국통신은 시간 끌기와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며 투쟁의 지체만 부추기고 있는 지금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다시 한번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이 바라는 최악이 우리의 최선임을 자각하며 다시 한번 투쟁의 고삐를 움켜쥐고 승리를 향해 달려 갈 것≫이라 밝혔다.

참세상뉴스 2002/04/06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1)

차 례

▶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2)

나는 이전에 발표한 논문들에서 북(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신흥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을 논증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서술은 생략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언급한다.

첫째, 2002년 3월 11일 미국 연방상원 정무위원회에서 미 중앙정보국 전략 및 핵계획 담당관 로버트 월폴(Robert D. Walpole)은 ≪2015년까지 외국의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관해 증언하면서 북(조선)이 사거리 1만5천킬로미터의 중량급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북(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가운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화학무기보다 독성이 수백 배이상 강한 생물학무기인데, 이를테면 탄저균 10그램은 사린가스 1톤과 맞먹는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만일 탄저균 6킬로그램이 들어있는 탄두를 미국 워싱턴에 투하하는 경우 워싱턴 인구 60만명은 전멸한다고 한다.

셋째, 미국 국방부에서 탄도미사일방어를 총괄하고 있는 공군중장 로널드 카디쉬는 2002년 2월 27일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지금 북(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1주일전에 미국에게 발사예정을 통고하고 타격목표를 밝힌 뒤에 교란장치도 없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그것을 요격할 길은 전혀 없다고 솔직히 인정한 뒤, 현재의 미사일방어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아마도 2004년쯤에 가서야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카디쉬는 미사일방어계획이 현재 기술적 난관과 허위보고사건에 가로막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신빙성 없는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그의 발언은 미국 군사과학기술의 한계와 미국 군부의 무능을 덮어두고 미국인들을 안심시키려는 술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카디쉬의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이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의 집요한 감사활동에 의해 세상에 폭로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감사원이 18개월 동안 정밀추적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천3백80억달러가 들어가는 요격미사일 개발사업에서 미사일 제조를 담당한 주계약자 보잉사(Boeing Co.)와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를 담당한 참여업자 티알더블유사(TRW Inc.)는 1997년 6월에 시제품을 제조하여 시험발사하였으나 요격대상에 대한 전자식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험발사가 실패했는데도 마치 성공한 것처럼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제출한 것이다.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서 중심이 되는 요격미사일 개발사업은 1998년 12월에 보잉사의 경쟁업체인 레이시온사(Raytheon)로 넘어갔는데, 현재 허위보고사건은 국방부의 국방사업범죄수사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소송을 당한 상태에 있다. (뉴욕타임스 2002년 3월 4일자)

부시 행정부 자신도 신흥군사강국 북(조선)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무턱대고 위협과 협박, 강압과 공갈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부시 행정부는 북(조선)에 대해서는 교활한 전술을 취하고 있다. 공갈발언과 협상요구를 번갈아 내밀고 있는 전술이 그것이다.

공갈발언과 협상요구를 번갈아 내놓고 있는 전술을 언뜻 바라보면 협상과 대결을 병행하는 양면전술인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부시 행정부의 전술을 두고 마치 부시 행정부 안에서 조미관계와 관련하여 대결강행파(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담당보좌관 등)와 협상추진파(국무부)가 서로 갈라져서 내부갈등을

➡

광고

6.15주간

제41호 (03.29-04.04)

노작 -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특집1 - 필요없어! 나가!
사회단체 ≪F-15K≫전투기도입 강력 반대
의정부 시민단체 주민 미군기지신설 반발
부평미군기지, 인천 시민 품으로
평택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한미 당국의 LPP 협정 체결은 국민 기만
한국네티즌연합 식목일 2차 반미행동전
특집2 - 4월, 한반도가 움직인다
민족대단합 장이 될 ≪아리랑≫축제
≪아리랑≫창작 완성단계에로
현 정세와 아리랑 축전의 의의
임동원 특사 파견과 통일정세의 변화
특집3 - 개꿈에 취해 허우적거리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북기본로선≫, 반공화국전쟁선언 반통일선언
이회창 부정비리 밝혀져야
한나라당 집안싸움으로 깨질 조짐
6.15선언 제동 거는 자들에겐 앞길 없다
한국민족민주전선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미국의 대북핵전쟁도발광증을 규탄
청년주체주의자대오
주체 91년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할 데 대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예술론을 깊이 연구하자!

빛고 있다고 분석하는 세간의 여론은, 제국주의자들의 난폭성과 야만성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현대 제국주의의 본질과 행태를 막연한 일반 상식으로 더듬어 보려는 천박한 인식이다. 그러한 천박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서는 현대 제국주의진영이 전쟁도발의 난폭성과 지배예속의 야만성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은 협상과 대결을 병행하는 양면전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의 전술은 머지 않아 조미 정치협상에 끌려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북(조선)에 대한 공갈발언으로 협상 재개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면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이른바 ≪벼랑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방한하였던 부시가 찾아간 몇몇 곳들 가운데에는 서부전선도 포함되었다. 한국(조선)전쟁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부정사건으로 탄핵을 받아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던 리처드 닉슨만 빼고 모든 대통령들이 서부전선에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에 부시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80피트 떨어져 있는 주한미군 관측소(Observation Post Quellette)에서 미군장교를 안내를 받으며, 건너편에 있는 북측의 평화박물관에 1976년 8월의 판문점사건때 미군이 맞아죽은 도끼가 전시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 ≪과연 그렇군, 나는 저들이 악이라고 생각한다.(No wonder, I think theyre evil.)≫고 중얼거렸다. 부시가 그렇게 중얼거린 말은, 그 이전에 군사분계선을 방문했던 두 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내뱉었던 공갈발언들에 비하면 확실히 기가 죽은 발언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1993년 7월 11일 클린턴(William J. Clinton)은 군사분계선이 가로지른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들어서서 소감을 묻는 외신기자에게 ≪북(조선)이 핵을 개발해 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종말(the end of their country)을 의미한다.≫고 공갈을 쳤다. 클린턴의 그러한 공갈발언은 그로부터 약 1년전인 1992년에 현재의 대통령 부시의 아버지인 부시(George H. W. Bush)가 군사분계선에서 ≪우리 군대의 능력, 의지에 의문을 품는 자들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한 마디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던 공갈발언 보다 훨씬 더 도발적인 것이었다.

클린턴은 방한 직전인 1993년 7월 9일에 방영된 미국 엔비씨(NBC) 텔레비전과 회견하는 자리에서도 ≪만약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해 이를 사용할 경우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듯이 그들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압도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다.≫고 공갈쳤으며, 남(한국)의 ≪연합통신≫(당시 이름)과 진행했던 서면대답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군사력이 두 개의 지역전쟁을 치를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으며 두 전쟁을 사실상 동시에 수행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들이 이처럼 북(조선)을 겨냥하여 공갈발언을 내뱉은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이번에 군사분계선에 나타난 부시는 이전에 두 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북(조선)에 대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강도높은 도발적 발언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전의 부시나 클린턴은 북(조선)에 대해서 매우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공갈발언을 하면서 협상하자는 제의를 내놓지 않았지만, 오늘 부시는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려는 의사를 계속하여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클린턴의 협박전술과 부시의 협박전술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차이이다.

2001년 10월 16일 부시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남(한국)의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합뉴스 독자들에게 우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자고 제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올 6월 우리는 그들이 선택하는 시간에 기꺼이 대표를 보내 그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우리 쪽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있다. 그는 한국과 만나지 않고 있으며 우리와도 만나지 않고 있다. 아마 그가 만나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도 든다.≫

2001년 11월 27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켈리(James Kelly)는 ≪미국은 대량파괴무기, 특히 탄도미사일과 관련하여 북(조선)과 진지하게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대화의지는 진지하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29일 주한미국대사 토머스 허바드(Thomas Hubbard)는 서울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미국 정부는 북(조선)과 대화할 의지가 있고 준비도 되어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지 조건 없이 북(조선)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1월 28일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부시 행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이 북(조선)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대화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시는 2002년 3월 20일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조선)과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북(조선)이 이런 대화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상대하기 힘든 적수와 담판하는 자리에 마주앉기전에 상대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미리 내놓으면서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정작 상대와 담판자리에 마주앉았을 때는 그 전에 내놓았던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슬쩍 거두어들이면서 자기가 그만큼 양보했으니 상대도 그에 상응하게 양보해야 한다고 우겨댄다. 이것이 미국의 ≪벼랑전술≫이 보여주는 행태다. 부시 행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이 재개될 경우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벼랑전술≫을 구사하면서 지금 내밀고 있는 문제는, 북(조선)이 군사분계선에 근접하여 배치한 재래식 무력을 뒤로 후퇴시키고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내일 계속)

한호석(통일학연구소장) - 2002년 3월 15일 작성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통일운동의 대하 (2)

21세기 **김정일**시대

반미자주화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새로운 고양과 함께 민족자주위업완성의 가장 정확한 길을 명시한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이 급격히 확산되고 주체사상신봉자대열이 늘어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이 민족자주이념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는 민족자주화운동으로 더욱 힘차게 전개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었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쿠바신문 그란마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P・13)

민족의 통일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실현하자는 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 시종일관 견지해 오시는 통일의 근본방도와 관련한 기본입장이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과 남사이에 합의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이 3대원칙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정당성에 대한 선전을 광범히 진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어 북과 남, 해외동포들과 진보적 민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공화국에서는 당기관지와 정부기관지를 비롯한 각종 출판물에 연방국가창립방안의 정당성을 해설하는 글들이 많이 편집되고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근로단체대회들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업이 토의되고 각종 군중집회들에서 이남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지지성원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투쟁에 이남민중이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이남민중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유일무이한 통일강령, 공명정대한 통일헌장, 필승의 통일강령으로 높이 찬양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였으며 총련을 비롯한 해외교포조직들도 연방국가창립방안을 지지하는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고 운동집회들을 가지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당과 정부에서는 연방국가창립방안을 지지하여 편지와 축전을 보내오고 국제민주단체들과 진보적 인사들이 지지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지지위원회들이 조직되었으며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락위원회의 발기로 1981년 3월부터 시작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시정방침을 지지하는 국제적 서명운동에는 1년사이에 100여개 나라와 24개의 국제기구들에서 16억이상의 각계층이 참가하였다.

(계속)